

# 청년이 기록한 1980년대 군산 민주화운동·6월 항쟁

입춘, 6월에 봄이 오다  
김성훈 지음

“내가 이것들을(사회운동들) 다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 찍고 다녔어요.” (박창신 신부·사진)  
“어쩌면 이 필름은 역사에 있어서 6월 항쟁의 경과과정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필름일지도 모른다.”(김성훈 저자)



군산 오룡동 성당 박창신 신부가 남긴 1980년대 기록사진들은 후대의 유산이 됐다. 1987년 6월28일 가두시위에 나선 군산시민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하는 전투경찰. <녹두서점 제공>

군산 오룡동성당 박창신 신부는 1980년대 사회운동 현장에서 필름 카메라를 들고, 군산 대역사철학부(역사전공)에 재학하며 지역역사를 공부하던 1994년생 20대 청년은 박 신부의 필름을 통해 6월 항쟁을 비롯해 뜨거웠던 그 시대를 554쪽 분량의 두툼한 책에 담았다. '입춘(入春), 6월에 봄이 오다-박창신 신부 필름으로 보는'을 펴낸 저자 김성훈은 머리말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당시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 이 이야기를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라며 6월 항쟁 등 1980년대 군산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를 밝힌다.

“저는 90년대에 태어난 여러분의 아들딸입니다. 6월 항쟁의 주역들이 저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중간 세대'로서, 제 다음에 태어날 이후 세대들을 위해 제 방식으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고단했지만 아름다웠던 청춘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박 신부와 지역 청년활동가, 50·60대 시민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6월 항쟁과 1980년대 군산 민주화운동 역사를 퍼즐처럼 맞춰 나갔다. 그리고 박 신부가 직접 촬영한 수천 장의 사진과 기증받은 사진들을 정리

해 크게 ▲1987년 6월 이전 ▲1987년 6월 ▲1987년 6월 이후로 나눠 지역 민주운동을 서술한다. 신간은 번의 편을 포함해 총 7부로 구성됐다. '1987년 6월 항쟁' 이전인 1·2·3부는 1984년 군산 오룡동성당에 부임한 박창신 신부와 성당에서 마련한 시민강좌, 세풍합판 노동쟁의를 다룬다. 4부는 군산 6월 항쟁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군산시민들은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여는 지역보다 뜨겁게 거리에서 '호헌(護憲)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5·6부는 6월 항쟁 이후의 노동자 투쟁을 다루고, 번외로 1980년대 대표적인 교육계 운동공조자 사건인 '오송회 사건' (1982년)을 살핀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였던 이광웅 시인 등 교사들은 26년이 흐른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자는 “그의 투박한 사진에서 나오는 평범함은 평범한 영웅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말한다. 또한 “학생 운동가들이 사회운동에 투신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던 것은 광주 민중들의 정의감, 사랑으로 피어난 시민의식이었”고

분석한다. 신간은 잊혀지고, 묻혀버린 1980년대 군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진보적인 박창신 신부와 전양권 목사, 지역 청년활동가 등을 되살려냈다. 오룡동성당을 중심점으로 전개된 시민운동과 노동쟁의, 군사정권의 억압구조 등 한국 현대사가 오롯하게 녹아있다. 20대 청년이 기록한 6월 항쟁과 1980년대 군산 민주운동사는 너무나 소중한다. 저자는 ‘민주화를 이뤘던 군산시민들’에게 “6월 항쟁은 시민의 역사”라는 메시지를 남긴다. “모두가 영웅이었던 시대에 자신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다. 대중의 의식이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영웅이었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87년 6월, 여름에 풀냄새가 짙은 봄이 찾아왔다.” <녹두서점·2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코번트가든의 여자들=18세기 은밀한 베스트셀러에 박제된 뒷골목 여자들의 삶을 초점화한다. 1757년 런던에서는 한 권의 책이 출판되고, 40여 년 만에 개정돼 총 25만 부 판매고를 올렸다.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해리스 리스트’는 18세기 런던의 유흥가 코번트가든 뒷골목의 풍경을 생생하게 포착한다. 사기 결혼으로 매춘부가 됐던 스펜서 양, 채찍질의 달인 러브본 양 등 매춘부 삶을 통해 런던 귀족들의 허영심을 폭로한다. <북트리거·2만2000원>



▲남새의 쓸모=일상과 기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남새’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특정 남새와 향은 후각 수용체로 전이돼 특정 흥분이나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뇌로 전파된다. 과학적 현상을 넘어서 남새는 인간의 지각과 태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타인에 대한 비호감은 물론이며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요리의 풍미를 자극하기도 한다. 체취와 페로몬 등 남새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남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준다. <에코리브르·1만6000원>

▲알테쉬투의 공습=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광고를 송출하는 미국 슈퍼마켓에서 최대 금액을 지출한 대체는 무엇일까. 30초당 약 93억 원의 광고를 6번이나 송출한 ‘테무’가 주인공이다. 이 광고로 경기 당일 미국 내 테무 검색량은 1.139% 폭증했다. 이른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로 요동치는 대한민국 유통 시장의 미래는 예측 불가 상태다. 세계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한다. <더숲·2만 원>

▲두 개의 인도=차기 패권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미국, 중국 등과 경쟁할 수 있는 G3의 잠재력을 지녔다. 1950년대 초 일본보다 높았던 인도의 수출 점유율, 뒤처진 도시화율 등 통계는 인도의 모순된 일면이다. 최강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인도는 6억 7000만 경제활동인구, 3억 3000만 비구직자가 공존하는 아이러니에 빠져 있다. 드넓은 국토와 인구, 학구열로 대변되는 인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생각의힘·3만2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한컷속 한국사=기원전 2333년 고조선이 세워지면서 우리 땅에는 최초로 역사가 시작됐다. 5000년에 달하는 우리 한국사 속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존재했다. 삼국으로 나뉘며 고초를 겪었던 갈등의 역사, 나라를 뺏긴 고통의 역사, 한글 창제 및 독립운동의 역사가 모여 현재의 대한민국을 존립시킨다. 한국사의 주요 사건 60개를 만화로 만난다. <풀빛·1만5000원>

표지지만 하나의 장르로 정의되지 않는 피카소의 작품을 12개 테마로 살펴본다. 우울한 화풍으로 대변되는 청색시대를 거쳐 장밋빛 화풍을 연 피카소의 미술사를 조망한다. <열림원어린이·1만6000원>

▲작고 아름다운 피카소의 미술수업=아비뇽의 아가씨들과 게르니카, 카사헤마스와 몽마르트 언덕 등은 피카소가 캔버스에 드러낸 소재들이다. 입체주의로 대

▲육교진 선생님의 과학 개념 사전 : 생물·지구 과학=우리 생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일상적 과학 이야기를 알려준다. 열매가 달콤한 이유, 화산이 폭발하면 발생하는 일을 비롯해 달의 위상이 변화하는 이유 등 어린이가 궁금해할 법한 생물·지구과학 지식을 쉽게 풀어낸다. 동물의 종류, 식물의 한살이, 기상현상과 우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다산어린이·2만2000원>

# 심리학·철학·경제학·과학·예술로 보는 행복의 이모저모

일상 철학자를 위한  
행복 수업



주리에 지음

피에르 우귀스트 르누아르의 그림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는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댄스홀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미술치료사이자 상담심리사인 주리에 한양사이버대 미술치료학과 교수는 이 그림에서 ‘행복의 순간’을 본다. 앙리 드 톨루즈 로트레크의 ‘침대에서’를 통해서도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 위로를 주는 ‘누군가’가 있다며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주리에 교수가 쓴 ‘일상 철학자를 위한 행복 수업’은

심리학, 철학, 경제학, 과학, 예술로 보는 행복의 이모저모를 담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 한 학기 1000명이 수강하는 인기 강좌이기도 한 저자의 행복 심리 수업을 소개한 책이다. 그는 여러 연구와 심리학 이론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해 행복의 구성요소로 건강한 몸, 안정적 감성, 균형 잡힌 생각, 주고 받으며 나누는 관계, 성취와 일을 꼽는다. 무엇보다 행복의 큰 요소 중 하나인,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진솔한 태도와 함께 묻고 맞추어 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복에 관여하는 능력치를 높이고 마음 근육을 키우는 방법으로 그가 제시하는 게 ‘생각 줄이기’다. 특히 ‘왜’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의 생각을 가장 많이 점령하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현재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에 한발 다가서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행복은 습관이라는 길을 따라서 온다”고 강

조하며 자신만의 긍정적 습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한 순간의 생활 도표를 작성해 매주 한 일을 기록하고 중요한 활동과 우선 순위가 높은 활동을 분석하는 게 그 출발이다. 책은 그밖에 행복에 관여하는 능력치를 높이고 마음 근육을 키우는 방법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가, 앞의 희열을 느끼는 하는 배움, 운동 등을 적절히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문학, 춤, 사진, 영화, 그림, 음악 등 예술을 감상하며 심미적 경험을 쌓고, 때로는 직접 예술활동에 참여해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행복에 한 발 다가서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책 사이사이 수잔 발라동의 ‘투망’, 폴 세뤼시에의 ‘강북의 소년들’, 빈센트 반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 등 행복의 단상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명화와 이미지도 함께 실었다. <학교도서관저널·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